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인숙¹ · 박호란² · 박현정³ · 박영혜⁴

¹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²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⁴(사) 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n

Lee, In-Sook¹ · Park, Ho Ran² · Park, Hyun Jeong³ · Park, Young Hye⁴

¹Doctoral Stu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³Full-time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⁴Director,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an.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llustrate the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and repor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and November of 2009 in Hana-won and 105 mothers who met eligibility criteria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Ignorant/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f parenting showed the highest score in our study. The level of parenting efficacy was 2.72 ± 0.36 and adaptation stress level was 3.35 ± 0.47 showing perceived hostility the highest and homesickness the lowest. Participants with moderate to severe PTSD accounted for 79.5% of the mothers, and 75% of them reported symptoms for 3 months or more.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efficacy, cultural crisis and fear, adaptation stress and PTSD. **Conclusion:** Mothers who have defected from show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nd high adaptation stress level and PTSD while parenting efficacy was high.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s which can guide these mothers toward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Parenting, Efficacy, Stress, PTSD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

작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입국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만 4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중요

주요어 : 북한이탈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본 논문은 2009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성의기초과학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atholic Medical Center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2009.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o Ran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505 Banpo-dong,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7406 Fax: 82-2-2258-7772 E-mail: hrpark@catholic.ac.kr

투고일: 2010년 9월 24일 1차수정: 2010년 10월 13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0일

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Hong, 2005).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이다. 이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1항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전후 20-40대의 젊은 남성이 중심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Hong, 2003). 통일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42%, 2003년 63%, 2005년 69%, 2006년 75%, 2008년 78%를 차지하였다. 또한 1-19세 아동의 비율 역시 전체 북한 이탈주민의 16%를 차지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착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Hong, 2005).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또 다른 사회로의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본인 뿐 아니라 이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는 아동의 최초의 교사이자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행동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2004). 아동기는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되어 부모의 감독과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Hong, 2003).

자녀양육행동이란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며 부모-아동 상호관계 속에서 아동의 인지, 정서, 성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다. 북한 이탈 여성들의 상당수는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연령(Ahn & Park, 2002), 학력 및 취업유무(Ahn & Park, 2002; Choi, 2004), 가족의 월 소득 수준(Kim, 2009), 문화 및 사회적응도(Jin, 2010) 등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북한의 교육환경 및 사회화된 환경과 전혀 다른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 및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지만 월 소득이 낮고, 여러 이질화된 측면들을 경험하면서 문화나 사회적응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남한의 교육기관 및 문화, 언어 차이로 자녀와 갈등을 겪으며 남한 내의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03).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Choi, 2004). 이는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부모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Kim, 2009).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Ahn & Park, 2002; Kim & Do, 2004).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새로운 한국문화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개인의 능력에 과도한 부담이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등 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이증으로 겪게 된다.

한편 북한 이탈 여성의 상당수는 중국 내 체류 후 남한으로 입국 과정에서 인신매매, 불법 감금, 강간, 폭행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 질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인다(Baik, 2002). 난민 여성의 외상경험과 건강 및 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성(Robertson et al., 2006)을 볼 때, 북한이탈 어머니의 과거 외상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자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들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상태를 다룬 논문들이 약간 보고되고 있을 뿐이고(Hong 2005; Lee, 1997), 여성이 어머니로서 그들의 양육문제를 다루거나 또한 양육문제를 그들의 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와 연관 지어 다룬 논문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양육효능감과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북한 이탈 어머니를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자녀가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자녀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을 조사한다.

둘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조사한다.

셋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적응 스트레스를 조사한다.

넷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조사한다.

다섯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 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여성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자녀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8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 중 초등생 자녀를 둔 어머니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5명의 어머니가 연구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지가 부실하였거나 중도에 탈락한 대상자는 없었다.

연구 도구

자녀양육행동

자녀 양육행동은 Baik (2009)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 척도’ 20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어머니의 평소행동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아주 다르다)~4점(아주 비슷하다)’ 점수범위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이 도구는 3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며 각각 ‘온정/수용’이 7문항, ‘허용/방임’ 7문항, ‘거부/제재’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3가지 영역의 점수에 따라 어머니가 점수가 높은 영역의 자녀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온정수용’이 .83, ‘허용방임’이 .70, ‘거부제재’가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67, .84이었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Floyd, Gilliom과 Costigan (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nfidence의 학령기 자녀용 도구를 Ahn과 Park (2002)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15문항의 도구를 사용했다. 원 도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trol scale’과, 부모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under control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1점부터 4점까지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 역할을 어려워하는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

이었고, 본 연구 대상자에게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1이었다.

적응 스트레스

적응스트레스는 San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Lee (1995)가 수정 보완한 총 33문항을 사용했다. 도구는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지각된 차별감’ 6문항, ‘향수병’ 4문항, ‘지각된 적대감’ 5문항, ‘문화충격’ 3문항, ‘두려움’ 4문항, ‘죄책감’ 2문항, 기타 사회적 고립과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의 문제를 나타내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응답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문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수정하여 역점처리하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했다. 수정을 거쳐 재구성된 척도는 하나원의 북한관련 교사 혹은 북한 이탈주민에게 자문을 구해 다시 수정한 후 사용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분석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Foa, Cashman, Jaycox 및 Perry (1997)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척도(PDS)를 Ahn (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SM-IV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묻는 질문 17문항과 증상을 경험한 기간에 관련한 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1점으로, 증상 수준은 일반적 임상에서 DSM-IV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10점 이하는 약함, 11-20점은 중간, 21점 이상은 심함으로 해석하였다. 선행연구(Ahn, 2005)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대학의 IRB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하나원 출입과 자료수집에 대하여 하나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각 기수별로 소그룹으로 형성하여 연구자와 시간 약속을 하고 연구자와 일대일로 만나 이해 못한 용어부분에 대해 설명을 받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가 모두 끝난 대상자에게는 비타민을 선물하여 사례

하였다. 총 설문 작성 시간은 30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자녀양육행동 하위영역 및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즉 대상자의 연령은 21세에서 50세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연령은 35.6세로 조사되었다. 남편과의 동반입국 여부에서 남편 없이 이주한 대상자가 60.0%로 대부분의 여성이 남편과 동반입국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의 교육 정도는 고등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84.8%로 가장 높았으며,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가 51.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3.3%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37.1%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했으나, 대상자의 5.7%는 주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에서부터 남한 도착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폭넓은 분포를 보였는데, 10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대상자가 22.9%, 1년 미만이 21.9%, 5년 이상-7년 미만 19.0%, 3년 이상-5년 미만 18.1%, 1년 이상-3년 미만이 6.7%이었다. 3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소요된 대상자들은 중국에 거주한 후 제 3국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행동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자녀 양육행동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4점 만점에 2.58±0.36,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2.57±0.34,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2.66±0.45점으로 대상자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훈육, 무시와 같은 ‘거부제재’ 자녀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총점 4점 만점에 평균 2.72±0.36점으로 조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r)	21-25	9	8.6
	26-30	19	18.1
	31-35	20	19.0
	36-40	36	34.3
	41-45	19	18.1
	46-50	2	1.9
	Mean±SD	35.58±6.24	
Marital Status	Defection along with her husband	12	11.4
	Defection without her husband	63	60.0
	Divorce before defection	17	16.2
	Widowed before defection	13	12.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1.0
	≤High school	89	84.7
	≤College	11	10.5
	≤University	3	2.8
	Etc.	1	1.0
Occupation before defection	Laborer	54	51.4
	Soldier	5	4.8
	Member of cooperative farm	10	9.5
	Clerk	8	7.6
	Unemployed	7	6.7
Smoking	Etc.	21	20.0
	Current	1	1.0
	Previously	6	5.7
Drinking	Never smoked	98	93.3
	No drinking	39	37.1
	<1/1 month	32	30.5
	2-4/1 month	21	20.0
	2-3/1 week	7	6.7
Duration before arrival (yr)	≥4/1 week	6	5.7
	<1	23	21.9
	1≤	7	6.7
	3≤	19	18.1
	5≤	20	19.0
7≤	12	11.4	
10≤	24	22.9	

Table 2. Parenting Behavior (N=105)

Categories	Mean±SD	Range
Warmth/Acceptance	2.58±0.36	1.90-3.40
Permission/Neglect	2.57±0.34	1.70-3.40
Rejection/Restriction	2.66±0.45	1.20-3.70

되었다.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가 3.54±0.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3.29±0.70), ‘부모 노릇은 나를 지치고 진빠지게 한다’(3.2±0.71)가 높은 점수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2.14±0.96)였다.

적응스트레스

적응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35±0.47점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지각된 적대감이 3.81±0.64점으로 높았고, 지각된 차별감이 3.78±0.58점, 문화충격 3.65±0.66점, 두려움 3.63±0.82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였다. 가장 낮은 수준의 하위 영역은 향수(2.84±0.64)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본 연구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점수 평균은 15.70±9.25점으로(최소값 0, 최대값 43), 일반적 임상에서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중간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다(Table 4). 각 점수 분포별 대상자는 11점에서 20점이 43.8%로 가장 많았다. DSM-IV에 근거하면 21점 이상인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본 대상자의 25.7%가 증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등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비율이 79.5%였으며, 이 중의

75%는 증상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녀양육행동 하위 영역과 양육효능감은 온정수용형 자녀양육행동($r=-.390, p<.001$), 거부제재형 자녀양육행동($r=-.209, p=.0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대상자의 자녀양육행동 방식 중 온정수용 양육 행동이 문화충격($r=-.249, p<.05$)과 두려움($r=-.231, p<.05$), 기타 적응 스트레스($r=-.263,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80, p<.01$).

한편, 각 적응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및 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에서는 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지각된 차별감과 향수병($r=.360, p<.01$), 지각된 적대감($r=.540, p<.01$), 문화충격($r=.404, p<.01$), 두려움($r=.339,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Adaptation Stress (N=105)

Categories	Mean ± SD	Range
Perceived discrimination	3.78 ± 0.58	2.2-5.0
Homesickness	2.84 ± 0.64	1.0-4.8
Perceived hostility	3.81 ± 0.64	1.8-5.0
Cultural shock	3.65 ± 0.66	1.0-5.0
Fear	3.63 ± 0.82	1.5-5.0
Guilt	3.22 ± 0.98	1.0-5.0
Etc.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distrust, sorrow,...)	3.05 ± 0.58	1.8-4.7
Mean ± SD	3.35 ± 0.47	2.1-4.7

Table 4.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N=105)

Total score of PTSD	Total N (%)	Duration of symptoms		
		<6weeks	6weeks ≤ <3M	3M ≤
0-10	32 (30.5)	15 (53.6)	2 (12.5)	15 (24.6)
11-20	46 (43.8)	11 (39.3)	10 (62.5)	25 (41.1)
21 points or more	27 (25.7)	2 (7.1)	4 (25.0)	21 (34.4)
Total	105 (100)	28 (26.7)	16 (15.2)	61 (58.1)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N=105)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PTSD
	Warmth/Acceptance	Permis-sion/Neglect	Rejection/Restric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Home-sickness	Perceived Hostility	Cultural Shock	Fear	Guilt	Etc.*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1											
Permission/Neglect	.22 (.025)	1										
Rejection/Restriction	.18	.36 (.000)	1									
Parenting efficacy	.39 (.000)	.03	-.21 (.032)	1								
Adaptation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09	.05	-.06	.07	1							
Homesickness	-.18	-.01	.05	.19 (.048)	.36 (.000)	1						
Perceived Hostility	-.05	.08	.03	.34 (.000)	.54 (.000)	.33 (.001)	1					
Cultural Shock	-.25 (.010)	-.13	-.15	.26 (.008)	.40 (.000)	.40 (.000)	.37 (.000)	1				
Fear	-.23 (.018)	.05	-.02	.26 (.008)	.34 (.000)	.42 (.000)	.60 (.000)	.41 (.000)	1			
Guilt	-.13	-.03	-.03	.02	.16	.54 (.000)	.27 (.006)	.25 (.012)	.45 (.000)	1		
Etc.	-.26 (.007)	.05	-.07	.35 (.000)	.35 (.000)	.48 (.000)	.54 (.000)	.38 (.000)	.52 (.000)	.49 (.000)	1	
PTSD	.38 (.000)	.15	.12	-.34 (.000)	-.25 (.011)	-.35 (.000)	-.42 (.000)	-.40 (.000)	-.41 (.000)	-.18	-.29 (.003)	1

*Etc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Distrust, Sorrow,...).

논 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과 양육효능감 및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도와 그들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양육효능감과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88.6%가 남편과 동반입국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비율에서 80% 이상이 여성 입국자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 군인, 협동 농장원 및 사무원 및 기타 직업이 93.3%이었는데, 이는 여성이 북한의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역할을 했으므로 미루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가 있겠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훈육, 무시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부제재' 행동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ik (2009)의 연구에서 남한의 어머니들이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순으로 양육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제재적, 강압적, 공격적, 적대적,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Park, 2008) 반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Park, 2010) 선행 연구 결과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적절한 훈육방식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긍정적 예측인자라는 Newman Harrison, Dashiff와 Davies (2008)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거부제재' 형 양육행동은 그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안정된 삶과 모자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2.7점으로, Jeon (2009)의 연구에서 비슷한 연령의 대상자의 평균 3.4-3.5점, Kim (2009)의 연구의 3.01과 비교할 때 남한의 어머니들보다 낮았다. 각 항목 중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의 항목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는 항목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결과로 미루어 대상자들은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많은 자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양육효능감

은 부모역할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Ahn과 Park (2002)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 관련 영역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반면, 통제적 행동을 덜 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양육은 어느 누구보다 위기일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양육효능감을 높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들의 적응스트레스는 평균 3.35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 새터민에게 조사한 Lee (1997)의 연구에서 평균 3.21점, 청소년들에게 조사한 Seo (2007)의 연구에서 평균 3.09점인 결과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남한에 도착하여 남한사회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하나원에서 12주간 여러 취업훈련 및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하나원의 생활이 신변안전의 위협,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야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는 이민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Caplan, 2007), 새로운 사회에 살도록 그리고 다른 문화시스템에 작용하기 위해 변화하도록 학습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부가한다(Foss, 2001). 본 연구 대상자인 하나원 입소 어머니들은 초기 입국 단계에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받으며 긴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경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높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응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지각된 적대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향수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Lee (1997)의 연구에서 향수와 지각된 차별감이 높은 점수였고, Seo (2007)의 연구에서 향수와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자의 연구대상자가 정착한 탈북민으로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할 때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면 본 연구 대상자는 남한에 입국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탈북을 결심했던 동기가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고 남한으로의 적응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에 비해 향수 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의 예측인자를 연구한 Shin, Han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적응스트레스 수준과 현재 생활 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크면 클수록 미국이민자의 행복 수준이 증가되고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적대감과 차별감을 감소시켜주고 문화충격이나

두려움, 죄책감 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및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사회로의 적응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평균 15.70점으로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면 중간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었으며 대상자의 70%가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중간 이상 수준에서 증상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비율은 75%이었는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중간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진 75%가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Kang (2001)의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을 27.4%로 제시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은 비장애 집단에 비해 외상적 경험을 유의하게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Hong (2005)은 입국초기 북한 이탈 주민의 부분적 PTSD 유병률 31.8%, 완전한 PTSD 유병률 27.2%를 제시하였으며, Seo (2006)는 전체 대상자의 45.1%인 절반에 가까운 대상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정신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탈북 어머니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상을 경험한 생존자로서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갖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건강문제가 훨씬 많으며, 특히 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성의 면역 반응을 낮추게 하며 그리하여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하였다(Stephanie, Gayle, & Thomas., 2005). 따라서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의 위협요인에 대해 사정하여 진단받고 조기 중재를 통하여 남한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는 그들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양육행동의 각 하위 영역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온정수용형, 거부제재형의 자녀양육행동을 가질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졌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한다는 Ahn과 Park (2002), Jeon (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은 남한의 어머니들과는 다른 거부제재형의 양육행동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키우고 도와주어야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아닌 북한에서의 부정적이

고 적대적인, 제재적인 사회 분위기가 주민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자녀양육행동의 각 하위 영역과 적응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문화충격과 두려움, 기타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을수록 온정수용 행동보다는 허용방임이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하위 영역인 허용방임과 거부제재 자녀 양육행동과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적응스트레스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클수록 향수가 커지고, 적대감은 높아지며 문화충격이 크고, 두려움 및 기타 스트레스가 높았다.

멕시코계와 유럽계 미국인 가족들의 경제적 상태, 양육행동 및 아동적응에 대한 Parke 등(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낮을수록 적대적 양육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초기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부모-자녀 간에도 부적절한 역할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통제적 양육행동은 재난 이후 아동의 건강에 위해가 되고 회복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으며(Bok-szczanin, 2008),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는 아동의 적응 및 학업수행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느끼는 문화 충격을 인지하고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갖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남한 정착과 관련된 두려움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자녀들에게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남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으로 남한에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 자녀를 향한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양육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와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양육행동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추후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간호 중재를 모색하기 위해 2009년 8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105명의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양육 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훈육, 무시와 같은 '거부/제재'의 행동이 가장 많았다.

둘째, 양육효능감에서는 대상자들이 부모 역할에 대해 인식은 잘하고 있으나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적응 스트레스는 하위 영역별로 '지각된 적대감'이 가장 높았으며, '향수'가 가장 낮았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중등도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79.5%였으며, 대상자의 75%에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다섯째, 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온정수용형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 문화충격과 두려움, 기타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북한 이탈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이 그들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후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양육행동은 어머니들의 인지만으로 평가했으나, 추후 북한이탈 어머니 및 아동이 인지한 양육행동의 일치도를 평가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행동과 각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양육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n, H. N. (200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trauma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217-231.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 53-68.
- Baik, J. W. (2009).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 Comparisons between mother's perception and child's percep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aik, Y. O. (200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China and aids policies for them.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6, 241-264.
- Bokszczanin, A. (2008). Parental support, family conflict, and overprotectiveness: Predicting PTSD symptom levels of adolescents 28 months after a natural disaster. *Anxiety, Stress, and Coping*, 21, 325-335.
- Caplan, S. (2007). Latinos,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 dimensional concept analysis. *Policy, Politics Nursing & Practice*, 8, 93-106.
- Choi, K. W.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fficacy,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mother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Hwasung.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 1461-1479.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445-451.
- Foss, G. F. (2001). Maternal sensitivity, posttraumatic stress, and acculturation in Vietnamese and Hmong mothers.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6, 257-263.
- Hong, C. H. (2005). *The 3 yr follow 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Hong, J. E. (2003).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ent's changes and problems in child-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eon, H. M. (2009). *The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toddler's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Jin, H. J. (2010).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parent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mothers for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 Kang, S. N. (2001). *Development of trauma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M., & Do,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The Journal of Children*, 25, 279-298.
- Kim, S. S. (2009). *The relationship parenting efficacy of low economic class mother and parenting behavior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The entry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Retrieved October 18, 2010, from <http://kostat.go.kr/wsearchNew/search.jsp>.
- Lee, S. J. (1995).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R. (1997)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ewman, K., Harrison, L., Dashiff, C., & Davies, S. (2008).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risk behaviors in adoles-

- cent health: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Revista Latino-Americana Enfermagem*, 16, 142-150.
- Park, H. M. (2010).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preschool children'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J. Y.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ullying or the victimized children's behaviors and parental rearing behaviors : Focusing on the children's communication, and children's problem solving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e, R. D., Coltrane, S., Duffy, S., Buriel, R., Dennis, J., Powers, J., et al. (2004). Economic stress,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5, 1632-1656.
- Robertson, C. L., Halcon, L., Savik, K., Johnson, D., Spring, M., Butcher, J., et al. (2006). Somali and Oromo defector women: Trauma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6, 577-587.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eo, B. R. (2007). *Saetomin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lcohol expect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eo, J. Y. (2006). *A study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H. S., Han, H. R., & Kim, M. T. (200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 415-426.
- Stephanie, J. W., Gayle, G. P., & Thomas, S. A. (2005). Predicting immune status in women from PTSD and childhood and adult viol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8, 306-319.